

기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영농편익 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전종생)는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기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지구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의 3개리 일원으로 수혜면적 105ha 지역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량 증가로 자연해가 우려되어 왔던 곳으로 조속한 개보수와 토공으로 된 용수로로 구조물로 개·보수가 요구돼 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성 확보로 농경지 침수방지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6년 특화작물 집중 육성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업인과의 간담회

포천시는 지역 농정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05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과거에는 국가가 지방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지방이 국가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포천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백화점이 아닌 몇 개의 특화된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대표품목으로 발전시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협 및 작목반 개별 브랜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는 DDA, 한·칠레 FTA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관,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버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을 공급하는 등 2006년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18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12월 1일은 1988년, AIDS 예방을 위해 UN이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로, 올해로 18회 째를 맞았다. 금년은 또 국내에서 HIV/AIDS 감염인이 발견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포천시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IDS 감염을 억제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 신음5일 장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천시 보건소는 에이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팸플릿을 배부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 안내패널을 전시하고 만성 전염병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소나무재선충병 豫防이 최선”

포천시산림조합, 명성산에서 홍보 캠페인



포천시 산림조합 남궁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20일 명성산 등산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시 산림조합(조합장 남궁중)은 지난 20일 명성산 등산로 입구 등산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 전단지 배부하면서 재선충병방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나무에이프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경북 포항과 안동을 지나 강릉까지 확산되면서 강원도와 인접하고 있는 포천시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남궁중 산림조합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울머어 신규로 발견된 곳이 13개 지역으로 이중 62%가 인위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포천시 지역 또한 강원도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궁중 조합장은 “포천시산림조합은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축적검문소와 민세교검문소 등에 직원들을 배치해 소나무 이동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발견하면 관련기

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11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무류 사업장의 이동 및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속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경찰서, 혁신 지향 위한 직장교육



포천경찰서는 지난 8일 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지향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8일 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지향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각 기능별 주요현안 사항 공지 등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교육에 앞서 김영배 서장은 훈시를 통해 “각 기능별 기본근무에 대한 확연 및 읍주운전·잔존부조리·금품수수 등 자체사고 방지를 실시하며 대민 치안에 있어 혁신적 친절·봉사를 통해 국민에 감

동을 주는 치안서비스 실현이야말로 성공적인 수사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음”을 당부했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人事

7급 진보 ▶이광호 주민자치과 ▶김한성 건축과 ▶전우상 재난관리과 ▶8급 진보 ▶임옥빈 영북면 ▶연미숙 선단동 ▶9급 신규 ▶김지영 문화정보담당관실 ▶김예희 재난관리과 ▶김정훈 수도사업소 ▶박종범 건축과 ▶서주현 수도사업소 ▶정혜진 소홀음 이상 2005년 12월 5일자.

목회단상

결산의 시간



김형성 내촌교회목사

어느새 을유년(乙酉年)도 빛바랜 캘린더와 함께 마지막 잎새를 남기고 있다. 금년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결산(決算)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등 뒤에 언제나 들리는 소리 시간이란 날개를 가진 전차(戰車)소리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은 황막(荒漠)한 사막(沙漠) 영원이라 불리는 광야(曠野)” 이것은 앤드류 메벨의 시이다. 등 뒤에 언제나 바작 추격하고 있는 시간을 의식하고 있다.

시간은 영웅도 만들고 실패도 만든다. 우리는 공평하게 을유(乙酉)년 한해의 시간 선물 받았다. 어떻게 썼느냐는 전적인 본인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수입잔고와 함께 지출 잔고를 분명히 물으신다. 시간, 물질, 건강,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

루이스 스티븐슨은 이런 시를 읊었다.

“아침 북 소리 킷가에 전을 일으킨다. 이슬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나는 일손을 멈추고 정오의 종소리를 쏜다. 그리고 곧 울려 울 저녁 호포(號砲)를 예감하며 또 한번 손가락에 전을 느낀다.”

시간을 알리는 여러 가지 소리에 무척이나 신경을 곤두세운 작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정해진 열차 시간에 맞추어 달려온다 준비하고 습차한 사람은 즐거운 여행이 되지 만 준비못해 승차하지 못한 사

람은 다음 시간을 기다리며 후회하고 뒤떨어진 길을 가게된다. 시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된 결과는 자유가 아니고 엄격한 책임이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이 강조되고 있다. 지나간 시간 앞에 후회가 없기를 원 하지만 늘 아쉬움이 자신을 자조감(自慙感)을 빠지게 한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일을 정리할 때가 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 앞에 후회가 없으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한 해를 접고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심서는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에베소서 5장15-16절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문의) 031-532-2489

하천오염 방지 및 깨끗한 환경 조성

동절기 맞아 하천변 대청소



포천시는 지난 2일 포천천과 호병천 등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청결활동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하천이 결빙되기 전에 주변 쓰레기를 수거해 하천오염을 막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는 하천변 외에도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각종 행사장과 주요 행사장 등에 방치해 놓은 쓰레기를 함께 수거했다.

이날 청결활동은 공무원들 비롯해 주민, 군인, 학생, 환경단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14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인 청결활동을 통해 깨끗한 포천 만들기에 앞장섰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㉔ 내촌면 자율방범대 대장 길선환

自生力 갖춘 방범대 운영 절실

“형제, 이웃으로 이루어진 내촌면 자율방범대는 내촌면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촌면 자율방범대는 1980년대 후반 창설, 현재 길선환(43) 대장에 이르고 있다.

길선환 대장은 일반 대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해 3월 내촌면 방범을 책임지고 있는 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했다.

내촌면 자율방범대는 총 28명으로, 대부분이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선환 대장을 위시해 조동진·홍성모 부대장과 손동신

총무로 임원진이 짜여져 있다. 대원들은 자영업 60%, 회사원 4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이 근무하고 있다.

방범 및 순찰 활동은 모두 7개 조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으며, 1일 4~5명씩 조를 편성해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평상시 활동은 내촌양조장 공터, 내촌나사터, 초·중학교 등 지역 방범 및 순찰활동으로 지역의 체육행사 및 민간, 관 행사 등에 요청이 있을시 교통지원을 하고 있다. 각 지역자율방범대처럼

포천시 시민의 날 행사 등에 동원되기도 한다.

내촌면자율방범대 역시 타 방범대와 같은 분기별 84만여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액 운영비로 사용된다.

특히 내촌면자율방범대는 내촌면생활안전협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매달 운영하는 아반떼 차량의 유지비와 보험료를 40여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길선환 대장은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기 위해 자체적인 회비를 거둬들이거나 자금을 모으지는 않고 있다”며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자율방범대에게도 할

당해 자율방범대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촌면자율방범대는 평소 근무복을 착용하고 순찰활동을 하지만 대부분 몇 년씩 대물림해서 입어온 터라 근무복 완비가 시급한 상태다.

길 대장은 “근무복 착용은 순찰 활동시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시비나 말다툼현장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포천시에 점진적 근무복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길 대장은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 치안안정을



길선환 내촌면 자율방범대 대장

경 포천신문 창간 16주년 축

안전한 전기사용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안전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특급 전기점검 기술자 다수 확보
- 최첨단 전기점검 측정장비 보유
-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보장



대표이사 안병호

전기신규신청과 전기 신·증설 공사 및 각종 대관업무 상담은 당사로 문의하세요



변압기 부하 점검